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전시 개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11월 16일까지 '다시 빛으로 : 우리 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 전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하 역사관)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22일부터 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시 빛으로 : 우리 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외지(外地)가 된 우리 땅과 일본의 지방 언어로 전락하게 된 우리말, 일본의 성씨 제도에 맞게 바꾸어야 했던 우리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자료는 <한일합방 기념엽서>, <전라북도 관내도>, <일제강점기 교과서>, <조선어학회 회원 사진>, <광복 기념 우표와 엽서> 등 56건 147점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하여 △외솔기념관 △최용신기념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한글학회 등 10개 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외지가 되어 일제의 편의에 맞게 변경된 우리 땅과 지명을 알아보고, 우리 지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광복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다시 빛으로 : 우리 땅, 우리말 그리고 이름' 기획전시 포스터

이후의 모습을 살펴본다.

△2부 '우리 국어'에서는 일제강점기 국어가 된 일본어와 조선말이 된 우리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국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소개한다.

점기 역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양질의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한복 기부 통한 한복 문화 계승·활성화

전주문화재단 한복문화창작소, 11월까지 한복 기부 캠페인 진행

전주문화재단 한복문화창작소는 오는 11월까지 한복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은 물론 한복 관련 업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추억이 담긴 한복과 원단, 소품 등 다양한 물품의 기부를 받고 있다. 수집된 물품은 한복문화창작소에서 운영하는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한복 문화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부된 한복은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체험 행사 등 여러 문화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물품은 한복 리폼 교육에도 쓰이며, 참여자들이 한복을 새롭게 해석하고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주한복문화창작소는 2023년부터 캠페인을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특히 기부받은 물품이 실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어 인스타그램(@jeonju.hanbok)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네이버 폼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 또는 택배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링크 및 접수처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복문화창작소 인스타그램 또는 전통문화팀(063-281-1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기증된 한복 한 벌 한 벌이 우리 문화교육의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한복 업계가 전통을 함께 이어가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복문화창작소는 오는 11월까지 한복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3)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 오 상 근 -

동식의 나이 벌써 서른다섯이다. 90년대에 징역에 들어갔다가 밀레니엄시대가 되어 나왔다.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었고 어제의 팔팔한 강동식이 아니다. 같은 세월 건달 생활을 한 놈들 중에 요리조리 세상의 파도를 제대로 탄 놈들은 사업체를 하나씩 갖고 있거나 아무리 못해도 술집 하나쯤은 켜고 있었고 가정을 꾸린 녀석도 있었다.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여기 고창 바깥 놈들도 몇 번은 반갑게 대해주겠지만 그 반가움이 얼마나 가겠는가. 게다가 이 건달 생활이 이제 지겹다.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짓도 지루하고, 경찰서나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짓도 이전 년더리가 난다.

아직은 확실할 수는 없지만, 박창수라는 자의 제안이 진짜라면 한번쯤 속고해 볼만하지 않을까. 10억이란다.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새 출발 할 수 있는 돈이다. 여기가 아닌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머리만 잘 굴리면 이 몸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툭툭한 놈 하나 골라 뒤에서 조종만 하면 된다. 무게추가 긍정 쪽으로 기울었다. 그렇다고 바로 박창수에게 전화를 넣지는 않았다. 고창 토박이 건달 체면이 있지.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광범한 사람들에게 으름장이나 놓고 위력을 과시하는 짓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잘못되면 남은 인생이 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복도 치고 장구도 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정태였다. 오정태는 동식보다 세 살 많은 고창을 주름잡는 조직의 두목이다. 패거리가 조직을 다잡 때부터 동식은 정태와 함께 했다.

"좀 쉬었냐?"
"예, 형님."
'쉬었으니까,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무슨.....?"

'청룡건설이라고 알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뒤를 보냈던. 이번에 농약 뽕시기에서 하는 공사를 하고 싶더라. 요새는 다 전 자입찰인가 뭔가를 한다. 그래서 어떤 놈들이 입찰에 들어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전 자입찰로 들어오는 놈들을 좀 불러주란 말이다. 청룡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청룡 사장이 수고비는 좀 챙겨줄 거야. 어때냐?'

".....생각해보겠습니다요, 형님."

'야, 생각하고 말 것 없어! 청룡에 전화해서 바로 알아봐.'

건달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새벽, 어김없이 같은 식구들은 나를 깔끔한 복장을 하고, 고급차들을 몰고 와 교도소 앞에서 대기한다. 물론 선배들도 동참하는 때가 있다. 새벽 5시쯤이면 형기 마친 놈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데, 서열보다 아래인 조직원들은 일제히 도열해서 수고했다고 90도 인사를 올린다.

출소하는 날, 동식은 내심 정태가 교도소 앞에 와 있기를 바랐다. 그 정도의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동식은 섭섭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조직을 잘 건사해야 한다. 아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빵이나 들락거리게 하는 두목은 능력이 떨어지는 놈이다.

마약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처음 정태가 그걸 하자고 했을 때 동식은 손을 내저었다.

마약은 위험도가 높았다. 징역에서는 마약으로 들어온 죄수를 '뽕쟁이'라 부른다. 히로뽕에서 나온 말이다. 마지막에나 손을 대는 게 그 뽕이다. 동식은 고개를 이로 꺾었지만 두목이 하겠으니 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 '시민 인문 강좌' 진행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 화립 교수)는 23일 오후 2시 전북대 박물관에서 '제2회 시민 인문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국립의교원 김동석 교수가 연사로 나서 '떠나는 아프리카, 돌아오는 아프리카: 이주의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이주 현상과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오늘날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유익하

고 깊이 있는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의 시민 인문 강좌는 '시민과 함께, 아프리카를 읽다'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격주 수요일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아프리카와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